

CGNTV

M A G A Z I N E | Spring 2017_Vol.16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TV T.02)796-9800 F.02)749-6638 www.cgntv.net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배우 윤안나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영적 유산은, 첫 1조 조항
 ‘오직 진실한 회개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하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곧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면 그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며
 회개를 거부하는 교만과 악함을 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고 성결한 만큼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가운데
 올 한해 우리 모두가 놀랍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 시무예배 설교 중에서



CONTENTS

Spring 2017_Vol.16

여는 글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
포토에세이 사진작가 신미식

I. Special

- 04 **커버스토리** 배우 윤안나
서평으로 기억될 얼굴
- 06 **인터뷰** CGNTV 운영위원장 정상건 장로
복음과 감동을 나눌 영화
- 07 **추천의 말** 홍정길, 김유수 목사
이 시대에 추천하는 서서평
- 08 **썸 코멘터리** 4인 4색
영화 <서서평>의 여정에서
- 10 **시사후기**
서서평을 만난다는 것 / 두란노 송민희 부장
다시 조명된 서서평의 의미 / 온누리교회 남기용 성도

II. Program

- 12 **썸인** 어린이 찬양제
찬양하는 주의 어린이
- 14 **초이스** <나침반 C>
다방향 소통 특강쇼, 첫 제작 현장
- 16 **Inside Out**
KNOCK 미니콤 <두근두근 마카롱> 시즌2

III. People

- 18 **선교지의 아침** 필리핀 박누가 선교사
사랑하기 때문에
- 21 **방송 밖 풍경**
<인포리를 부탁해> 그 이후
- 22 **CGN 사람들** 신입사원 양윤대, 박은규

IV. News

- 24 **국내 / 해외뉴스**
- 28 **요일별 편성표**
- 30 **후원자스토리**
- 31 **후원안내**
- 32 **에필로그** 양주현 장로(CGNTV 운영위원, 현 S&S그룹 회장)
세상 속 교회로



COVER STORY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서서평 역 배우 윤안나

CGNTV Magazine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발행일 2017년 3월 31일(통권 제 16호)
발행처 CGNTV(www.cgntv.net 02-796-9800)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TV
발행인 이재훈
대표 이용경
편집인 김경훈, 함태경
기획 CGNTV 커뮤니케이션팀
진행·편집 현아영, 정원이, 어대준, 조인애
글 조인애
사진 어대준, 박민수, 스파지오
디자인·인쇄 페이지원(02-757-3111)

착한 사람들이 사는 곳

빛이 아름다웠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마을처럼 착한 사람들만 살 것 같은.
웅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은 또 얼마나 포근해 보이던지.
속으로 몇 번을 생각했다.
저긴 분명 착한 사람들만 사는 곳일거야.
오랫동안 머물고 싶었다.
저 마을에 방 하나 얻어서 마을 사람들과 알콩달콩 지내고 싶었다.
착한 사람들이 사는 소박한 마을.
그곳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 마다가스카르에서

신미식 사진작가, 여행수필가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프레임 안에 사람과 삶, 다채로운 풍경을 담아낸다.
저서 <머문자리>, <사진가는 길에서 사람을 배운다>, <에티오피아, 천국의 땅>외 다수

서평으로 기억될 얼굴

배우 윤안나

또렷한 눈매에 앙다문 입술.

선교사 서서평으로 기억될 독일인 배우

윤안나(Anna Elisabeth Rihlmann)의 얼굴이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연기과에 재학 중인

윤안나는 한예종 연기과 전문사 과정에 합격한

첫 외국인이다.

한국 영화에 반해 16세에 한국행을 결심하고,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당찬 여성이다.

열정 면에서, 뜻을 위해 혈혈단신 조선 땅을 밟았던

선교사 서서평과 겹쳐지기도 한다.

한국을 사랑한 두 독일인 여성.

안나는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통해

시간을 거슬러 결국 선교사 서서평과 마주했다.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기획·제작 CGNTV)가 오는 4월 26일 개봉된다. 주인공 서서평 선교사는 향방이 흐트러져가는 시대에 누구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다. 이에 영화는 그녀의 감동적인 족적은 물론 그 이면에 있는 그녀의 인간적인 모습도 깊이 들여다봤다. 영화 내 재연드라마도 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제작진의 선택이었다. 관건은 서평을 보여줄 배우였다.

제작진은 독일어와 영어가 동시에 가능하고 영어에 독일어 억양이 있는 배우를 찾았다. 무엇보다 서평의 감정을 잘 살려줄 크리스천이길 바랐다. 제법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여정에서 제작진은 예비된 만남처럼 안나를 만났다. 안나는 제작진이 바랐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한예종 연기과 전문사 과정에 처음 합격한 외국인인 안나는 열정만큼이나 좋은 선례로 남고 싶었다. 또 누구보다 한국을 좋아했기에 꼭 한국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자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뻔하다는 말을 들으면 늘 마음이 흔들렸다.

그때 그녀는 어머니의 한 마디를 듣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한국 역사를 보면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일군 것들이 많았다”며 “네가 꼭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안나에 따르면, 독일인들은 아직 한국에 익숙하지 않다. 안나도 영화를 통해 서서평 선교사를 알게 됐다. 독일어를 비롯해 영어, 불어, 라틴어, 한국어까지 5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 역사에도 열심인 안나는 출연을 앞두고 서서평 선교사에 관해 열심히 공부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서서평의 메시지는 그녀에게 큰 울림으로 남았다.

“아름이 느껴졌어요. 어머니에게 거절당하고, 먼 나라에서 힘든 삶을 살고.” 안나는 서서평 선교사를 연기하며 남몰래 눈물을 흘린 순간들이 많았다. 또 촬영을 마치면 늘 많은 생각이 들었다. 특히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서서평의 메시지는 그녀에게 큰 울림으로 남았다.

안나가 느낀 서서평 선교사는 강한 사람이었다. 병약한 중에도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하려 했던 뜻이 굳건한 사람이었다. 또 누구에게든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안나가 가장 마음에 남는 대사도 바로 “괜찮아요?”였다. 먼저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서서평 선교사는 늘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영화 <서서평>의 마지막 촬영은 제주도에서 진행됐다. 당일 촬영 전 기도는 안나가 맡았다. 안나는 전 스태프들이 고개를 숙였을 때, 불현듯 요한일서 4장 16절을 암송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안나는 촬영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사람들과 그 사랑을 나누고 싶었다. 한 제작진은 안나가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느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나는 그렇게 서평이 됐다.

한국 영화가 좋아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안나는 자신의 바람대로 배우 데뷔식을 치렀다. “영화 <서서평>은 제 인생작일 것”이라고 할 만큼 의미 있는 시간도 보냈다. 꿈꾸던 역할로 시작한 출발. 독일인 배우 윤안나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진다.

복음과 감동을 나눌 영화



CGNTV 운영위원장
정상건 장로

CGNTV가 지난해 첫 영화 제작을 감행했다. 바로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다. 이 도전이 자신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던 CGNTV 운영위원장 정상건 장로는 CGNTV의 이런 행보가 반가웠다. 더욱이 '서서평 선교사'를 그린다는 점이 기뻐했다. 그는 "서서평 선교사야말로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희생의 모범"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정 장로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CGNTV를 격려하고, 서서평이 보여줄 시대적 메시지를 기대하며 이번 영화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후원했다. 그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 생명의 복음을 받은 빛진 자"라며 "우리엔겐 복음을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후원의 뜻을 밝혔다.

제작이 착수된 순간부터 개봉을 앞둔 현재까지 누구보다 영화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그는 현재 영화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운영위원들과 목표 관객 수를 정하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 또 국내 각 지역 시사 투어도 도울 예정이다. 기독교인들은 물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각 시사마다 교계는 물론 사회 각계 각층의 리더십들을 초청할 계획이다.

그가 <서서평>에 매기는 점수는 백 점이다. 주관적인 마음도 있겠지만, 선교사 서서평의 삶 자체가 그에겐 점수로 매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는 "서서평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며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온 몸으로 헌신한 그의 희생은 예수님 다음으로 큰 희생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첫 교회 시사회가 있던 지난 크리스마스, 그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순간, 눈물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을 봤다. 그의 주변인들은 이 영화에 대해 "그간 한국에 많은 기독교 영화들이 있었지만 이는 더 깊은 여운을 남길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평소 왼쪽 가슴에 늘 CGNTV 배지를 달고 다닌다.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서너 개씩 주머니에 넣어두기도 한다. 또 그의 명함 뒷면은 CGNTV에 대한 소개로 가득하다. 그는 "CGNTV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보람"이라고 할 만큼 CGNTV의 선교 사역에 애정이 깊다. 모든 것이 복음에 빛진 자의 마음일 터. 그는 "서서평 선교사님 같은 분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선교 제 1국가가 됐다"며 "우리도 서서평 선교사를 좇아, 가는 서서평이거나 보내는 서서평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시대에 추천하는 서서평

“신앙의 좋은 길잡이가 될 영화”

- 홍정길 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



CGNTV가 제작한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의 개봉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참 귀한 어른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델을 찾는 것은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값진 영화입니다. 전도자셨던 저희 외조모께서는 서서평 선교사의 제자였습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또 그 신앙의 계보는 이렇게 저의 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상한 말씀을 곧 자신의 모습인 양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어질 때 참 믿음이 됩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무던히 예수님을 좇아 사셨습니다. 영화 <서서평>은 우리에게 신앙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CGNTV가 제작한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의 개봉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참 귀한 어른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델을 찾는 것은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값진 영화입니다. 전도자셨던 저희 외조모께서는 서서평 선교사의 제자였습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또 그 신앙의 계보는 이렇게 저의 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상한 말씀을 곧 자신의 모습인 양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어질 때 참 믿음이 됩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무던히 예수님을 좇아 사셨습니다. 영화 <서서평>은 우리에게 신앙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무명의 선교사로 예수님처럼”

- 김유수 광주월광교회 담임목사



서서평 선교사가 한국에 오신지 100여 년 가량 됐습니다. 당시 남자가 아닌 여성이, 목사가 아닌 평신도로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 신분으로 들어온 것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32세 나이로, 선교사로서도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이자 간호사로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 땅에서 청춘을 불살랐습니다. 54세에 선교사역 22년 만에 생을 마칠 때까지 예수님처럼 사셨습니다. 외국인이었지만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인 삶을 사시며 예수님의 성육신적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번 영화를 계기로 그분을 알길 바랍니다. 그분의 섬김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세상은 보다 밝아질 것입니다.

영화 <서서평>의 여정에서

4인 4색 썬 코멘터리

‘천천히 평온하게.’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의 화법이다. 이는 주인공의 이름인 ‘서평(徐平)’의 뜻이기도 하다. 이름에 자신의 바람을 담았다는 서서평 선교사의 뜻 때문일까. 서서평 선교사를 조명한 영화는 그 뜻에 닿아있다. 천천히 서서평을 만나고, 어느 지점에서 평온하게 마음이 머문다. 배우 김혜자 권사는 어린 서평에 눈이 갔고, 만여 편 이상의 영화를 봤다는 영화평론가 민병록 집사는 영화가 주는 중국의 메시지에 마음이 머물렀다. 누군가에겐 생소하기도 한 이름 서서평.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에서 우리가 머물게 될 지점은 어디일까. 영화의 의의를 전하는 네 인사의 주요 썬 코멘터리를 들어봤다.



1 > “한 아이가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목상했습니다.” / 배우 김혜자 권사

아이 서서평에 눈이 갑니다. 엄마에게 버림받았던 아이. 그 아이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그녀는 먼 나라 조선에 와 홀로 남은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을 보듬었을까. 또 처녀의 몸으로, 자신의 시신까지 기증하며 아무 것도 남기지 않고 떠났을까. 불우했던 한 아이가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줄곧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목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2 > “다큐멘터리는 진실입니다. 영화 <서서평>은 인물을 진솔하고 집요하게 추적하며 이를 영화적으로 잘 승화시켰습니다.” / 영화평론가 민병록 집사

영화 <서서평>은 가까운 시대 실존 인물을 재조명해 더욱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그녀의 방에 남아있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란 구절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었던 서서평의 수많은 헌신들. 진실한 사랑의 실체.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만나 함께 깊은 감동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3 > “우리 가까이 이런 신앙의 모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겐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 광주동성교회 차중순 담임목사

서서평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한국에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분은 남성 선교사들이 여성들을 치료하기 어려웠던 시절, 여성 전담 간호사로 한국에 들어와 광주에서 우리와 20여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델이 우리 가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분의 삶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서서평 선교사나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분들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4 > “그분은 외국 선교사가 아니라 그저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을 위해 살았습니다.” / 광주제일교회 권대현 담임목사

서서평 선교사는 저희 광주제일교회 교인으로 계셨습니다. 원래 선교사는 선교부 일원이지만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외국 선교사가 아니라 그저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에 그분은 본인이 받은 선교비의 절반을 늘 교회에 봉헌했습니다. 또 간호사로서 많은 간호사들을 양성해 지역을 위한 삶을 살아가 했고, 조선간호부를 세계간호협회에 가입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늘 건강한 선교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서서평을 만난다는 것

송민희 부장

두란노 출판본부 출판2부



시인 정현중은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했다. 조선의 테레사라 불리는 서서평 선교사를 만나는 것 또한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었다. 그것이 영화든 책이든 작은 이야기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든.

개인적으로 서서평의 삶을 다룬 책을 만들고 있는 중에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만났다. 영화는 배우 하정우의 묵직한 내레이션을 따라 다큐와 재연드라마를 오가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큐영화의 특성상 많은 이야기들이 다뤄지기보다는 서서평의 삶과 사역에 대한 생생한 증언과, 고증에 따라 서서평과 당시 상황을 재연한 배우들의 연기가 조화를 이루었다.

서서평 선교사는 당시 조선에서라면 어디서나 눈에 띄는 외국인이었다. 하지만 큰 키에 푸른 눈인 그가 입고 다니는 것은 하얀 저고리에 검정 고무신이었고 그의 주변에는 남루한 행색에 가진 것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선교사'라고 할 만큼 검박했던 그의 삶이 영상에 고스란히 재연되었다.

영화는 후반부로 갈수록 가슴이 먹먹했다. 그는 왜 그토록 조선을 사랑했을까. 끊임없이 내게 되물게 됐다. 또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는 것을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돌아보게 됐다.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현실을 아뢰지 않고 왜 저마다 안일과 유익만을 구하느냐고.

똑바로 앉아 있지도 못할 만큼 연약해진 그가 영양실조로 54세에 죽으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투박하게 전해지는 다큐영화의 힘은 관객의 가슴으로 파고들고야 말았다. 그의 짧은 생이 가슴 아파서가 아니라, 그 헌신과 소박한 삶에 감동되어서가 아니라, 내 나라 내 땅의 사람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저리 뜨겁게 사랑했던 그의 마음에 부끄러웠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싸맨 푸른 눈의 어머니 서서평. 무엇이 제대로 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작은 예수의 삶인지, 무엇이 교회인지 그 길을 찾는 이들이라면 서서평 선교사를 만나 볼 일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그가 남긴 짧은 명제는 여전히 현재 시제다. 영화 개봉에 맞춰 서서평의 삶을 책으로 만들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다.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영화 <서서평>을 본 후, 내겐 다소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가 있었다. '이런 섬김을 어찌면 이렇게 모르고 있었을까.' 나 또한 이 영화를 통해 서서평 선교사를 처음 알게 됐다. 서서평 선교사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가 헐벗고 고통 받던 시절,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준 선교사다. 1930년 인도빈민가로 파송됐던 테레사 수녀 못지않은 섬김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보다 먼저 조선 땅을 밟았던(1912년) 서서평 선교사는 오늘날 저평가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조차 아는 사람이 드물다.

188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3천 명에 가까운 선교사들이 100년의 한국선교 역사를 썼다. 대부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검정 고무신에 무명한복, 된장을 먹으며 살다간 분이 있었다는 사실은 무척 감사하고 소중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싶었다.

또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에 대한 교육과 섬김 그리고 고아, 과부, 나환자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궁금해지기도 했다. 지금도 여성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다.

영화를 되짚어보면 비결은 예수님이었다. 그녀는 버려지고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고, 그 사랑에 감동했다. 이것이 그녀가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였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이 땅을 사랑했던 서서평의 섬김의 결과가, 제 2의 서서평들을 통해 한국 기독교 부흥의 밑알이 되어, 오늘날 수많은 열매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무척 큰 감동이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다. 서서평이 보여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정신, 낮아짐과 섬김의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돌아갈 때다. 이 길만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우리와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그분의 각오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다짐하며, 이 땅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를 주시길 기도한다.

영화를 보면, 1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무명의 선교사를 2017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귀한 영화를 제작해준 CGNTV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다시 조명된 서서평의 의미

남기웅 성도
온누리교회

주의 어린이



어린이 찬양제 '찬양하는 주의 어린이'

“어린이들의 탁월한 인물 표현과 하모니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악가 배재철)
 “선곡에 맞는 표정, 힘. 모두 하나님의 응원단이었습니다.” (PK 단장 장광우 목사)
 “모두가 1등인 무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시간이었습니다.” (CGNTV 운영위원장 정상건 장로)
 “여러분의 행복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작곡가 송세라 사모)



2



3



4

1. 워십팀 ACT'S 29의 역동적인 무대
2. CGNTV 대표 이용경 장로와 수상팀
3. 심사위원 성악가 배재철, 작곡가 송세라, 정상건 장로, 장광우 목사
4. 진행자 신동식 목사, 개그우먼 허민
5. 객석의 열띤 응원 현장

CGNTV 어린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나는야 주의 어린이>(진행 신동식, 허민)가 CGNTV 어린이 찬양제 <찬양하는 주의 어린이>를 개최했다. 2013년 4월 8일 첫 방송 때 올해로 4주년을 맞은 <나주어>는 지난 1월 100회를 넘어서며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나주어>는 TV로 만나는 주일학교로 지난 4년 간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국내외 선교지와 교회 사역에 큰 자양분이 됐다.

크게 '중창·합창', '워십' 두 분야로 진행된 이번 찬양제는 1차 심사를 거친 총 15팀이 지난 2월 18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2차 예선 무대를 치렀다. 이후 참가팀이 '중창·합창' 4개 팀, '워십' 5개 팀, 총 9개 팀으로 압축돼 3월 25일 오후 2시 김포 고촌교회 고촌아트홀에서 CGNTV 어린이 찬양제의 본선 무대를 장식했다.

각 팀들은 오랫동안 준비한 찬양들을 이날 몸과 마음을 다해 선보였다. '중창·합창' 부문의 '올리브 찬양팀' (세대로교회), '홀리스 콰이어' (벤엘교회) 팀은 팀명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했고, 가장 멀리 대구에서 온 '글로리아 합창단' (대구남덕교회)은 쌍둥이, 세 자매, 다문화 친구들까지 다채로운 팀 구성원들

로 눈길을 끌었다. '하람빛 중창단'은 팀원 모두 8살로 구성된 이번 찬양제 최연소 참가팀이었다.

'하.이.', '카르포스', '킹스키즈', '예친', 'ACT'S 29' 등 팀명부터 눈에 띄는 5개 워십팀들은 워십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모인 만큼 매 무대가 밝고 힘찼다. 소위 걸그룹처럼 사랑스런 팀, 난이도 높은 동작들을 선보여 눈길을 끄는 팀 등이 있었다.

심사위원을 맡은 성악가 배재철 씨는 이번 찬양제에 대해 "어린이들 모습 그 자체로 아름다운 찬양이었다"고 소감을 밝혔고, PK워십 단장 장광우 목사도 "모두 탁월함은 물론 협동성과 창조성, 진정성이 엿보이는 무대였다"고 격려했다.

수상은 각 부문별 한 팀씩 선정됐고, 예선을 치른 참가팀 모두 <나는야 주의 어린이> 워십 코너에 출연 기회가 부여됐다.

CGNTV 어린이 찬양제 <찬양하는 주의 어린이>는 오는 4월 16일 부활주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되며, 예선전 무대는 오는 4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 20분 <나주어> 방송시간을 통해 공개된다.

방송시간

본선무대- 4월 16일 부활주일 오후 8시 30분

예선무대- 4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 20분

※ <나는야 주의 어린이>는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20분 방송됩니다.



5

다방향 소통 특강쇼 <나침반>

첫 제작 현장



진행자 최윤영 아나운서

방송을 시청만 하던 시대는 끝났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접근성이 좋아진 것도 이미 옛말. 이제 방송들이 SNS를 도입한 다방향 소통 방식의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면서 한층 더 시청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CGNTV도 오는 4월 7일(금요일) 11시, 'Communication(소통)'을 접목한 신개념 '다방향 소통 특강쇼' <나침반>를 선보인다. CGNTV 대표 강연 프로그램 '나침반'의 새로운 시도. 에너지 넘치는 강의와 상호 소통이 넘치는 그 첫 제작 현장을 다녀왔다.

1. 페이스북 라이브 강연

<나침반> 첫 녹화가 있던 지난 3월 3일 오전 11시. 건강전도사 정주호(스타트레인 대표)의 강의를 정 씨의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진행됐다. 배우 송중기, 이병헌 등 수많은 스타들의 트레이너로도 유명한 정 대표는 이날 건강전도사란 별칭에 맞게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에 관해 강의를 시작했다. 이 시간을 기다렸던 이들이 하나 둘 페이스북에 접속했다. 또 강제가 시작됨과 동시에 댓글란에 자신들의 소감과 질문 등을 올렸다.

"성실의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아... 저희 팀장님도 이 강의 보셔야 할 텐데...", "운동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 일까요?" 등 각양각색이다. "아멘"도 많다. 더불어 공감 이모티콘 '좋아요', '멋져요' 등의 수치와 접속자들의 '공유' 횟수도 증가했다. 접속자들은 화상통화를 하듯 정 대표의 강의를 들었고, 타인의 생각에도 동참했다.



스튜디오 녹화 현장 (좌부터) 나도움 목사, 최윤영 아나운서, 임우현 목사, 개그우먼 정지민



2회 강연자 '건강전도사 정주호'



조상연 목사 강연 촬영 현장

2 스튜디오 녹화 현장

동 시간, MC와 패널들은 스튜디오에서 이 현장을 지켜봤다. 그들은 라이브 강의 현장과 TV 시청자들을 잇는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맡았다. MC 최윤영 아나운서를 중심으로, 임우현 목사(하늘향기교회), 나도움 목사(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 개그우먼 정지민이 패널로 함께 했다. 네 사람은 라이브 강의를 함께 들으며

시청자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강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 아나운서는 편안한 진행으로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밝게 이끌었고, 임 목사의 유쾌한 입담, 나 목사의 따뜻한 생각, 정지민의 친근한 멘트 등이 더해져 강의가 한층 더 알차고 풍성해졌다. 이들은 이유 있는 건강을 추구하는 정주호 대표의 에너지 넘치는 강의를 들은 후, "<나침반>가 앞으로 많은 이들의 삶에 '비타민C' 같은 방송이 될 것 같다"는 멘트로 첫 녹화를 마쳤다.

3. TV 방송

<나침반>는 매일 풍성한 오전 11시를 책임지는 <나침반>(월, 화) <나침반 바이블>(수, 목)과 동 시간 편성돼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방송된다. 첫 방송은 4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 '찬양사역자 박종호' 편이다. '건강전도사 정주호' 편은 오는 4월 14일 2편에서 소개된다. <나침반>는 이후 성경통독사역자 조상연 목사, 한국교회사 전문가 이덕주 교수, 웹툰 작가 김민석 등의 강의를 예정돼 있다.

※ <나침반> 페이스북 라이브 일정은 페이스북 <나침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cgntvcompass)



모바일 시청자들의 마음을 두드린 화제의 영상을 만나봅니다.

KNOCK 미니콤 <두근두근 마카롱> 시즌2



Inside 제작진에게 듣는다!

미니콤 <두근두근 마카롱>이 시즌2로 돌아왔다. 첫 출발이 좋았던 것 같은데.

» 공감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기존 기독교 콘텐츠들이 대부분 진지한 편인데 반해 장르도 새롭고 코믹해 신선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새로운 장르에 도전했다는 것, 크리스천 콘텐츠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것에서 의미있었다.



시즌1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 재밌는 대사와 공감 캐릭터를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또 시즌1의 캐릭터를 기반으로 유쾌한 에피소드들이 전개된다.

시즌2의 두근두근 테마는 무엇인가.

» 이 시리즈의 기본 테마는 '연애와 결혼'이다. 다만 이번 시즌은 '봄'에서 시작했다. 봄에서 20대 커플의 새 학기, 30대 커플의 적응기를 연상해 20대 커플의 쿵닥쿵닥 연애담과 30대 커플의 투닥투닥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남녀의 심리 차이에 주목해보면 보다 재미있게 공감하며 볼 수 있다.

미니콤의 제작과정은 어떤가.

» 미니콤 제작의 핵심은 많이 듣고 나누는 것이다. 키워드를 정해 여러 차례 팀 내 회의를 갖고 주변 실제 커플들을 인터뷰하며 에피소드들을 찾는다. 인터뷰를 하다보면 그들 사이에 공통점이 보이는데, 그걸 토대로 공감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초고로 대사, 상황을 시뮬레이션도 해보며 구체적 상황이나 콘티 등을 만들어 간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 회 차를 소개한다면.

» <War room 2017>(3월 25일 업로드) 편은 서로의 다름을 맞닥뜨린 30대 신혼부부의 전쟁 같은(?) 해프닝이다. <남자들이 사는 법>(4월 1일 업로드) 편은 아버지, 남동생, 남편까지 세대고하를 막론한 남자들의 천진난만(?)함을 그렸다. <연.알.못을 부탁해>(4월 8일 업로드) 편은 마음을 몰라주는 남자 친구에게 한없이 속상했다가 또 한 순간 무장해제되는 롤러코스터 같은 연애 심리를 보여준다.



Out 공감 댓글

<두근두근 마카롱> 시즌2 댓글 페이지에 달달한 풍경들이 이어지고 있다. 3월 25일 <War room 2017> 편이 오픈된 후, 연인 혹은 배우자들 간에 서로의 속마음을 알콩달콩 항변하고 있는 것. 영상을 함께 보며 서로에게 짧은 메시지들을 주고받고 있다.



※ <남자들이 사는 법>, <연.알.못을 부탁해> 편은 4월 1일, 8일(토요일) KNOCK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cgntv.knock)를 통해 업로드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필리핀 박누가 선교사

“메디컬 체크!” 필리핀 북부 ‘바기오’ 지역에 짧은 외침이 들린다. 소위 ‘필리핀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박누가 선교사의 음성이다. 한 영혼을 살리는 치유의 소리이자 복음의 문이었던 그 한 마디. 박 선교사는 15차 항암치료 중인 최근에도 지난 30년 가까이 “소풍처럼, 여행처럼 다녔다”는 그 여정을 이어갔다. 다음 사역은 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사랑하기 때문에’ 또 다시 떠나는, 그의 사역 현장에 CGNTV가 동행했다.



1

- 1. 클락 마발라캣 빌리지에서 아기를 진료하고 있는 박누가 선교사
- 2. 카팡아안에서 구름다리를 건너 환자를 찾아가는 길
- 3. 의료버스를 타고 사역지로 이동하는 모습
- 4. 의료버스 앞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2017년 1월, 개국 12주년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던 CGNTV에서는 우연히 필리핀 박누가 선교사의 사연을 듣게 됐다. CGNTV의 지난 12년 사역을 가장 뜻깊게 보여줄 내용을 찾고 있던 때였다.

박 선교사는 지난 30여 년간, 복음이 필요한 곳 한 영혼을 위한 발걸음을 병중에도 이어온 인물이었다. 그의 한결같은 세월은 누구보다 CGNTV가 걸어온, 또 걸어갈 길과 닮아 있었다.

박 선교사의 의료 선교는 크게 두 가지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마닐라 파라냐케에 위치한 ‘누가선교병원’과, ‘필리핀 전역’이다. ‘누가선교병원’은 외과, 피부과, 내과, 정형외과 등 여러 과의 진료가 이루어진다. 환자라면 누구든 찾을 수 있다. 필리핀 현지인에게는 진료비나 약값도 없다. 복음을 위해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의 두 번째 사역지는 그의 발길이 닿는 필리핀 전역이다. 그가 멈추는 곳이 곧 병원이다. 박 선교사는

1989년 의료 선교를 위해 아내와 6개월 된 큰 아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떠났다. 사역을 위한 마땅한 치료 장소가 없었던 당시, 그는 의료버스를 운행하며 필리핀 곳곳을 찾아다녔다.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직접 산을 넘고 다리를 건넜다. 그의 가족들은 6년 동안 그 버스에서 살기도 했다. 그가 제대로 모습을 갖춘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년이 안된다.

박 선교사는 정착하는 곳마다 진료를 했고 사람들에게 약과 음식을 나눠줬다. 그렇게 살린 생명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이젠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다. 필리핀 오지 원주민들에게 박 선교사는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의사이자 유일한 진료 창구였다.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봉사했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는 순간들. 정말 감동이고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누가선교병원’ 입구에도 적혀있는 이 생각은 그가 지금까지 이 사역을 이어 온 이유다.



3

4



국내에서 항암 치료 받는 모습

그는 10여 년 전, 췌장암으로 두 번의 수술을 했다. 간경화에 당뇨까지 더해져 사역을 이어갈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니었다. 지금은 위암 4기에 간과 임파선까지 암이 전이돼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때도 그랬듯 그는 지금도 이 길을 놓지 않고 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는 동안, 그는 이 사역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깨달았고 생명이 온전히 주께 달린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지난 10여 년간 병마와 싸우며 이 길을 걸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박 선교사의 가족들은 그가 이제 사역을 접고 여생을 건강 회복에 힘쓰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치료를 끝내면 늘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그를 보며, 이제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한다.

박 선교사는 “그곳이 내 집이고 내가 머물 곳이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일할 곳이다.” “나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가장 많은 곳이니까” 라고 말했다.

그가 CGNTV 카메라와 함께 방문했던 ‘바기오’는 필리핀 북부에 있는 지역이다. 마닐라에서 버스를 타고 7시간을 달려 버스에서 하룻밤을 묵고, 산길을 오르기 위해 지프를 빌려 세 시간을 더 달려야 도착하는

곳이다.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는 늘 해오던 대로 묵묵히 찾아갔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구름다리도 건넜다.

한 명의 환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풍을 앓고 있던 그 환자는 혈압이 너무 높아 약을 먹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였다. 박 선교사는 그녀에게 석 달 치 혈압약을 건넸고 다시 오리라는 마음을 전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박 선교사의 건강은 촬영도 조심스러운 상태다. 하지만 그는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기록을 CGNTV에 남기기로 했다. ‘사람 박누가’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를 응원하는 팬 카페도 있고, 보이지 않게 그를 도왔던 손길들도 있었다. 하지만 CGNTV는 이제 ‘사람 박누가’의 온 몸을 다한 헌신과 봉사뿐만 아니라 “박누가를 움직인 힘”, 그 원동력을 조명할 차례라고 믿고 있다.

※ 개국 12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사랑하기 때문에>는 4월 2일(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재방송은 4월 4일(화) 오후 3시 30분.

사랑에 사랑을 더함

<인포리를 부탁해> 그 이후

Mr.알바 왕, <인포리를 부탁해>(KNOCK 미니휴먼다큐)의 김준영 전도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 감사의 메시지를 올렸다. CGNTV의 리더십들이 지난 1월 11일 인포리로 찾아왔기 때문이다. 김 전도사는 뜻밖의 방문에 무척 반가웠다. 또 교인들을 살피주고, 선물도 나눠주는 섬김에 더없이 감사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사실 <인포리>를 통해 보여주었던 그의 섬김과 사랑에서 비롯됐다. 그는 세차 일로 번 월 200만원을 절반 이상 인포리 노인들의 생활비나 빚 갚는데 쓰는 예수바보 청년이다. 메시지에서 묻어나는 그의 마음은 역시 인포리의 아들다웠다.



“새해가 시작된 2017년 1월, 인포리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CGNTV 리더십 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은 지난 9월 <KNOCK> 출연자들과 함께 하는 한 식사 자리에서 제게 “CGNTV는 앞으로 더함교회와 함께 합니다”라고 하셨던 분들입니다. 워낙 바쁜 분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땐 그저 말씀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해 벽두부터 그분들은 그 짧은 약속에 담겼던 진심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이곳에서 더함교회의 하루 일과에 동행해주셨습니다. 깃잎 따는 일부터 어르신들 심방, 안수기도, 수요예배까지. 교인들의 명절 선물도 일일이 챙겨주셨습니다. 선물 중 닭가슴살도 있었는데, 덕분에 더함의 60대 청년 분들과 올 겨울 몸짱에도 도전해 볼까 합니다.

일과 내내 참 든든했습니다. 김경훈 목사님 이하 여러 국장님, 팀장님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격려와 응원인지 알기에 앞으로 더 정진 처리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요나가 되지 않고 감격적인 자가 되도록 전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7년 1월 11일
충북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더함교회에서



새로운 시작

신입사원 인터뷰



신입사원



CGNTV는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공동체다.
 방송 선교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뜻과 힘, 은사를 모아 지구촌 복음 전파에 소명을 다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듯, 인생의 행로 중에 CGNTV에 탑승한 사람들.
 신입사원 양윤대, 박은규도 그 중 한 사람들이다.



선교교육2팀
양윤대 PD

‘공유, 공감, 공생’ 삼공(三共) 사람으로

맞춤특강 <나침반>이 새로운 팀을 꾸렸다. 지난 12월 입사한 양윤대 PD가 새롭게 제작을 맡게 된 것. 10여 년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온 양 PD는 이번 CGNTV 입사까지 국내 대표 기독교 방송 3사를 두루 거친, 자칭 ‘기독교 방송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인물이다.

특히 이번 입사는 본인 인생의 큰 전환점이기도 했다. 지난 9월 결혼한 이후, 아내와 새 일을 위해 기도하던 중 열린 문이었기 때문이다. 사명감으로 시작한 방송이었지만, 그는 지난 10여 년간 끝없이 내적 갈등을 반복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다.

지난 2월 진행된 CGNTV 신입사원 수련회 ‘삼공편치’는 이런 그의 마음을 더욱 공고히 한 자리였다. 그는 “말씀을 통해 이제까지 나의 길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 땅을 팠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제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확신한다”고 했다. 또 “프로그램 시종은 물론 이동하는 차량에서도 기도하는 곳은 CGNTV가 처음이었다”며 “예수님을 닮으려는 동료들이 큰 힘이 된다”고 했다.

진중한 성격답게 “<나침반>의 비전은 아직 찾아가고 있다”는 양 PD. 하지만 그는 “시청자들을 위해 사례 중심의 강사를 찾는데 힘쓰고 있다”며 한 영혼에 대한 세심한 마음을 내비쳤다.



후원기획팀
박은규 사원

참 사람들을 만나다

지난 해 4월, CGNTV에 플루티스트가 입사했다. 후원기획팀 박은규 사원이다. 그녀는 플루트로 유학을 다녀와 입사 전까지 대학과 예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인물이다. 줄곧 음악만 해왔던 그녀가 어느 순간 CGNTV와 함께 하게 된 것이다. 그 기로엔 ‘사람’이 있었다.

입사를 앞두고 그녀는 새롭게 수행할 업무들에 자신이 없었다. 반면 눈앞에 다가온 상황은 설렘이었다. 업무처리를 위해 속성으로 여러 기능들을 배우기도 했지만, 그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봤다. 회사에는 생각 밖에 좋은 사람들, 좋은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동료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보내신 이유를 알 것 같았다”고 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치였던 제 마음을 치유받게 하시려고 이곳으로 부르신 것 같다”며 “그동안 매일매일 사람에게 감동하는 삶이었다”고 했다.

그녀는 현재 CGNTV 운영위원회 일을 주로 맡고 있다. 최근엔 여성운영위원회에 특화된 활동도 섬기고 있다. CGNTV 운영위원회는 주로 신앙과 일에 연륜과 역량을 두루 갖춘 인사들, 소위 사회적 어른들이 많다. 다행히 그녀는 음악을 하는 동안 많은 손윗사람들을 접해 이 업무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치유에만 있는 것은 아닌 듯한 대목이다.

“다시 연주자로 돌아가고 싶지 않는가?”라는 물음에 그녀는 “아니오”라고 했다. 그녀는 지금도 스스로 전공을 놓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만 담담하고 진솔하게 답했다. “저는 지금 제 자리가 좋고 만족스럽다”고.

국내뉴스

CGNTV 개국 12주년

CGNTV가 지난 3월 24일 개국 12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며 새 도약의 뜻을 다졌다. 이번 예배에는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에서 서평 역을 맡았던 배우 윤안나가 참석해 영화 출연과 관련한 자신의 간증을 나누며 은혜를 더했다. CGNTV는 2017년에도 도전적인 미디어 선교 사역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4월 26일 영화 <서서평>의 개봉과 TV드라마 제작, 신규 프로그램 <나침반C> <유턴> 등을 선보인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한국교회 나눔 프로젝트도 계속해 이어갈 방침이다. 제2회 미디어 아카데미가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진행되며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고향교회 섬김 사역도 펼쳐진다.



명예 시청자 모니터단 활동

CGNTV 명예 시청자 모니터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CGNTV는 시청자 맞춤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 선교의 동역자를 발굴하기 위해 2017년 새롭게 모니터단을 선발했다. 명예 시청자 모니터단은 기존 1기~4기 모니터단 중 선발된 구성원들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남녀 총 8명이다. 이들은 매월 정기 모임을 갖고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며, 제작국과 협의해 시청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간다. 지난 3월 27일 첫 모임을 가진 이들은 오는 8월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한다.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시사회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오는 4월 26일 극장 개봉을 앞두고,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시사회를 펼치며 감동을 전한다. 먼저 지난 3월 20일, 직원 및 CGNTV 동역자들이 한데 모여 영화를 통해 진정한 섬김과 헌신의 의미를 되새겼다. 시사회에 참석한 플루트 연주자 송솔나무는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선교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됐다”며 “자신의 삶과 사역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앞으로 CGNTV는 4월 3일 서서평 선교사의 사역지였던 광주 지역 시사회를 비롯해 4월 4일 목회자 시사회, 4월 17일 연예인&언론 시사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2017 CGNTV 운영위원회

2017년 첫 CGNTV 운영위원회가 지난 2월 11일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열렸다. CGNTV 이용경 대표의 업무보고와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의 메시지, 정상건 운영위원장의 2017년 운영위 계획 발표 등이 있었다. 신임 위원을 환영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운영위는 이날, 올 한해 CGNTV 시청 홍보에 보다 주력하고, 주변에 CGNTV 정기후원을 소개해 후원배가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짐했다. 이밖에 여성운영위원들은 올해부터 매달 정기모임을 갖고 CGNTV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5만 후원자 캠페인

CGNTV가 5만 후원자 캠페인 ‘하이파이버(Hi Fiver)’를 시작한다. 이는 기존 2만 8천여 명의 후원자들이 또 다른 동역자 한 명을 세워나간다는 목표의 캠페인으로, 기존 후원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미디어 선교의 불꽃을 이어나가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CGNTV는 방송에 대한 감동이 후원으로 이어졌던 점을 반영해 시청 확대 운동을 펼치고, 일반인 홍보대사를 세워 후원자들과의 교류의 장을 넓힐 계획이다. 한편 CGNTV 직원들은 “5만 후원자, 우리가 먼저 시작합니다.”라는 사내 캠페인을 열어 본격적인 캠페인에 불을 지폈다.

제5회 선교헌신자 파견예배

제5회 CGNTV 선교헌신자 파견예배가 지난 3월 6일 CGNTV 본사에서 진행됐다. 사회선교팀의 오성환 PD가 아랍 CGNTV에 선교사로 파견된 것. OPD는 지난 10여 년간 선교지 곳곳을 돌며 방송을 통해 수많은 선교지들을 소개해왔다. 그는 아랍 CGNTV 운영과 이집트 반석 미니스트리 협력, 중동 기독교방송 네트워크 및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게 된다. CGNTV 김경훈 목사는 이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라는 설교를 통해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오 선교사와 가족들을 축복했다. 오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그 땅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소감을 밝혔다.



해외뉴스

인도네시아 CGNTV _ 2017 워십 콘퍼런스

인도네시아 CGNTV는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워십 하우스 온누리교회 예배팀(리더 이상진 목사)'을 초청해 '2017 워십 콘퍼런스'를 진행했다.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콘퍼런스는 매일 약 350여 명, 3일 동안 총 1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참석자 중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80%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콘퍼런스는 CGNTV와 온누리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 인도네시아 한인교회 및 현지인교회 등이 연합해 마련했고, 주제 강의, 밴드 클리닉, 예배 미디어, 저녁 집회 등이 진행됐다.



일본 CGNTV _ 러브소나타 10주년 좌담회

일본 CGNTV는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 1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18, 19일 특별 좌담회를 개최한다. 러브소나타에 적극 참여했던 일본인 목회자들이 한데 모여 러브소나타의 열매와 의미,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총 2부로 진행되며 미네노 타츠히로 목사와 오이 미츠루 목사가 각각 1, 2부의 진행을 맡는다. 7월 방송 예정. 한편 러브소나타 10주년 집회는 오는 7월 25, 26일 동경에서 펼쳐지며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주 CGNTV _ 세 번째 오병이어 캠페인

미주 CGNTV의 '오병이어 캠페인' 세 번째 주인공으로 린다 한 권사가 출연한다. '오병이어'는 후원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미주 CGNTV의 후원 캠페인. 삶에 기적 같은 은혜가 많았던 린다 한 권사는, 지난 해 개봉된 실화 영화 <설리 - 허드슨강의 기적>의 실제 생존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한 권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10달러로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며 많은 이들이 새로운 기적에 동참하기를 호소했다.



태국 CGNTV _ 태국 <내 인생...> 리키 김 출연

배우 리키 김이 지난 2월 태국 CGNTV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에 출연했다. 그가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분리할 수 없듯이 내게 일과 사역은 하나"라며, "방송을 통한 우리 가족의 모습이 태국 내 시청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현재 그가 출연했던 공중파 육아 프로그램이 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리키 김 가족은 방송 후 태국 빈민가 크리스천 유치원을 방문해 빈민촌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다. 리키 김 방송분은 '태국 CGNTV 페이스북(CGNTV THAI)'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대만 CGNTV _ 사단법인 설립 추진

대만 CGNTV가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자문위원들의 긍정적인 평가 아래, 현재 대만 7개 현에서 30명의 발기인들을 모집했다. 개국 6주년 행사가 있는 오는 6월 20일, 법인 설립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만 CGNTV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중화권 선교방송으로 더욱 기틀을 다질 방침이다. 한편 대만 CGNTV는 급성장하는 대만교회의 실정에 발맞춰 지난 2월 16일 '선교하는 대만교회'를 주제로 개편특집 <선교 좌담회>를 진행했다.



아랍 CGNTV _ 다큐 <중동 부흥의 중심지 이집트를 가다> 제작

아랍 CGNTV가 개국 5주년을 맞아 특집 다큐멘터리 <중동 부흥의 중심지 이집트를 가다>를 제작했다. 아랍과 본사 CGNTV, 이집트 조에스터 미디어 선교사가 협력해 제작한 이번 다큐는 이집트를 통해 중동 부흥의 희망을 찾아본다.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2천 년의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다. 또 아랍 22개국 중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살고 있다. CGNTV는 이번 다큐를 통해 이집트의 오랜 기독교 유산과 중동의 부흥을 이끌 이집트 기독교 청년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CGNTV
프로그램
편성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5:0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 (영어자막) 05:4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6:2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09:00 생방송 주일예배(2부) 10:3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1:10 미니콘서트 섬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04:4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CGN 투데이 06:15 생명의 삶 07: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07:40 하용조 목사의 순종(영어자막) 08:5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10:20 [말씀] 김창근 목사(무학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04:40 [말씀]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CGN 투데이 06:15 생명의 삶 07:0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08:5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0:2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04:4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CGN 투데이 06:15 생명의 삶 07:0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07:40 [말씀] 김지철 목사(소망교회) 10:2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04:40 하용조 목사의 순종(영어자막)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CGN 투데이 06:15 생명의 삶 07:0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07:4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8:5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10:20 [말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04:4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CGN 투데이 06:15 생명의 삶 07:0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7:4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 (영어자막) 08:5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09:30 CGN 비전특강 10:2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1:00 다방향 소통 특강쇼 <나침반C> 11:30 거룩한 바보들	04:4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생명의 삶 06:2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07:0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09:5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0: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1:30 일과 신앙 리더십 훈련
13:20 어린이예배 13:50 생방송 주일예배(4부) 15: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6:00 영어예배 16:50 나침반 바이블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2:3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3:10 [말씀]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13:50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 14:50 [말씀] 박성민 목사 (한국대학생선교회)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팀 켈러의 사명과 축복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거룩한 바보들	12:30 [말씀] 정근두 목사(울산교회) 13:10 [말씀] 박성근 목사 (LA한인침례교회) 13:50 거룩한 바보들 14:50 [말씀] 권혁빈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6: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50 앤디 스탠리의 크리스천의 재정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2: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13:10 [말씀]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14:10 하늘빛향기 14:5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16: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	12:3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13:1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정체교회) 13:5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4:50 [말씀] 양춘길 목사 (뉴저지필그림교회)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컨퍼런스] 종교개혁: 믿음의 유산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12:3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13:10 [말씀] 마크최 목사(뉴욕IN2) 13:5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칩 인그램의 축복의 가정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7:50 새벽나라 18:00 [컨퍼런스] 종교개혁: 믿음의 유산	12:3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13:1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3:50 [말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15:30 나침반 바이블 15:50 종교개혁 500주년 기획 <오직 믿음, 오직 기도> 16:4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17:20 [말씀]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18:20 거룩한 바보들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21:4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23:00 나침반 바이블 23:30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19:3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20:10 유은정 원장의 마음치료코칭 21:0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22:4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23:20 [말씀] 김지철 목사(소망교회) 23:50 카일 아이들먼의 제자입니다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19:30 [말씀] 양춘길 목사 (뉴저지필그림교회) 20:10 일과 신앙 리더십 훈련 21:0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 (영어자막) 21: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2:4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23:2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23:50 크레이그 그로헬의 더불어 사는 법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9:3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20:10 CGN 북세미나 책길음 21:0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22:4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23:2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23:50 데이비드 플라렛의 래디컬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19:3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20:10 종교개혁 500주년 기획 <오직 믿음, 오직 기도> 21:00 [말씀] 권혁빈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40 거룩한 바보들 23:2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박완철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9: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20:10 형제교회 컨퍼런스 <웰빙처치> 21: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22:40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 23:2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23:50 맥스 루케이도의 일상의 승리 00:20 생명의 삶	18:20 하용조 목사의 순종(영어자막) 19:00 유은정 원장의 마음치료코칭 20:0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20:40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 21:2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22:5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3:50 팀 켈러의 사명과 축복 00:20 생명의 삶



감사의 표현

태중 아기가 CGNTV 후원자로 이름을 올렸다. 누구보다 먼저, 보내는 선교사가 된 영광의 주인공은 이하숨 아이다. 4개월 후 태어날 하숨이는 이재훈, 도성혜 씨의 둘째다. 평소 CGNTV를 후원하고 싶었던 하숨이의 엄마 아빠는 하숨이의 출산을 앞두고 첫째 하람이와 둘째 하숨이의 이름으로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 이는 소중한 두 딸을 주신 하나님께, 부부가 선택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아이들의 이름에서도 엿보이듯 부부는 두 아이의 이름이 자신들 보다 더 하나님께 기억되길 바랐다.

부부가 처음 CGNTV를 접한 것은 교회 예배였다. 부부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전라남도 광양의 '샘솟는 기쁨의 교회'로 선교에 비전이 있었다. 교회는 같은 비전을 바라보는 CGNTV의 영상들을 예배를 돕는 자료로 자주 활용했다. 부부는 그 영상들을 보며 선교지에 대한 생각은 물론 이전엔 못 봤던 선교사들이 눈에 들어왔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선교사님들의 영적 갈급함을 보면서, CGNTV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와 닿았다.

아내 도성혜 씨는 청년 시절, 선교지에 나간 경험이 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 현지 사역자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렸다. 결혼과 함께 지금은 보내는 선교사로 이를 대신하는 상태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언제나 순종할 마음이다. CGNTV 후원도 선교에 대한 그녀의 숨은 열정의 한 표현일 것이다. 남편 이재훈 씨는 이번 후원을 계기로 선교에 보다 뜻을 두게 됐다.

도성혜 씨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기도제목이다. 또 이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 그리고 아내가 되고 싶다.

“아이가 엄마와 자주 교회에 드나들며 아멘을 배우고, 찬송하는 모습이 가장 사랑스럽다”는 이재훈 씨는 아내의 권유로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 평소 매일 밤 아이를 위해 해주는 축복기도도 아내의 권유에서 비롯됐다. 아내를 신뢰하는 남편. 기도로 가족을 섬기는 엄마.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마음. 하람, 하숨이 엄마 도성혜 씨의 기도는 이미 응답 중인 듯하다.

후원안내

CGNTV는 오직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복음방송'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후원은 힘있는 복음 방송의 밑거름이 돼 선교지 한 영혼에게 새 생명을 꽃피울 것입니다.

■ CGNTV 방송사역 후원방법 안내

* 후원신청방법

1. 전화신청 02-796-2243
2. 인터넷 신청 www.cgntv.net 우측상단 후원하기 클릭
3. 모바일 신청 m.cgntv.net 후원하기 클릭

* 후원방식

1. 정기후원신청
 - 통장자동이체 • 신용카드 정기후원
2. 일시후원신청
 - 계좌이체 or 무통장입금 / 신용카드 / 휴대폰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 ARS 후원 060-700-1660 (한통화 5천원)

* 후원계좌

- 예금주 : (재)은누리선교재단
-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 우리은행 1005-801-017847
 - 국민은행 225101-04-006695
 - 농협 301-0072-3639-01

* 해외지사 후원

- KEB하나은행 573-910007-48104
- 예금주 : (재)은누리선교재단

CGNTV 실행위원회 배종수(실행위원장), 김용기, 김종건, 김종성, 이광형, 이인용, 장규환, 정운섭

CGNTV 운영위원회

정상건(운영위원장), 강경국, 강기석, 강상훈, 강신익, 고미애, 고현준, 구재영, 국정숙, 권득한, 권익현, 김관근, 김관식, 김명세,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성균, 김성목, 김성진, 김수영, 김신원, 김영길, 김오성, 김용성, 김원균, 김 인, 김인경, 김장렬, 김정훈, 김종수, 김종호, 김현중, 김형식, 김홍국, 김희준, 나영욱, 남상욱, 문성준, 문애란, 문영기, 박상송, 박성호, 박영한, 박은영, 박이철, 박지수, 박찬구, 박현규, 방찬중, 서명수, 서성렬, 서정호, 서춘희, 선우석, 성필호, 손태용, 손한기, 송영태, 신수은, 신철우, 심광명, 심상달, 심희돈, 안대륜, 양유식, 양재수, 양주현, 유병진, 유영섭, 유의준, 유아상, 유주희, 윤덕순, 윤석우, 윤영각, 윤원식, 윤진혁, 이경석, 이경호, 이관수, 이국주, 이남식, 이동엽, 이밖음, 이병하, 이서정, 이석일, 이영희, 이용만, 이은경, 이일표, 이일형, 이창환, 이춘희, 이학일, 이희연, 임진욱, 임창빈, 장 광, 장순애, 장정심, 정용주, 정재민, 정진호, 조성현, 조영준, 지성현, 채수삼, 최남용, 최도성, 최동환, 최유강, 최정수, 최훈학, 하성기, 하주현, 한상준, 한창격, 한형식, 함일성, 홍혜실, 황광석, 황상윤

CGNTV 시청방법

CGNTV와 만나는 다양한 방법
24시간 당신을 위한 감동과 함께 하십시오.

위성TV

- ▶ 국내 설치비용 : 30만원 (월 수신료 없음)
- ▶ 해외 설치비용 : 평균 \$200~500 (예) 인도네시아 16만원 / 남아공, 몽골 80만원
- ※ 복음에 소외된 선교지에 직접 안테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573-910007-69605 (예금주: 재단법인 은누리선교재단))

케이블TV

- ▶ **CJ** 영로비전 ch.322번 (디지털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D'LIVE** ch.304번 (디지털 HD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CS** 푸른방송 ch.702번 (프리미엄형 상품)

IPTV

- ▶ **olleh** G ch.237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0번)
- ▶ **SK** Btv ch.302번 (가입문의: 02-6269-7979)
- ▶ **LG** U ch.183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1번)

스마트폰

1. 어플리케이션 CGNTV Live
 - 이용방법: 스토어에서 CGNTV Liv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무료)
2. 모바일웹 m.cgntv.net
 - 이용방법: 인터넷 주소 창에서 m.cgntv.net 로 접속
3. 팟캐스트
 - 이용방법: 어플 설치 (아이폰: Podcast // 안드로이드폰: 캔디팟캐스트) → CGNTV 검색 → 프로그램 선택 → 영상 다운로드

인터넷 서비스

- CGNTV홈페이지에서는 고화질 Live 방송과 다시보기가 가능하며 유튜브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CGNTV인터넷 (www.cgntv.net)
 2. CGNTV유튜브채널 (Youtube.com/Globalcgn)

SNS

- CGNTV의 모바일 콘텐츠를 통해 일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CGNTV Korea : www.facebook.com/cgntv
 - KNOCK(노크) : www.facebook.com/cgntv.knock

세상 속 교회로

양주현 장로 (CGNTV 운영위원, 현 S&S그룹 회장)

이어령 박사의 저서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2013)라는 자전적 에세이가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 시대의 대표 지성인 그가 영성의 문턱을 넘어 돌아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일련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 책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사회적 감성은 이성적 판단을 토대로 일어나야 힘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선진국형의 높은 '지성'이 더해질 때 사회는 보다 법치가 안정되고 공권력이 회복됩니다. 또 이는 도덕이 살아나는 계기를 만들어 바른 교육과 언론을 통해 밝은 미래를 창조해나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시대를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식이 실제화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성의 끝에서 이어령 박사가 이야기 한, 바로 '영성'일 것입니다.

저는 CGNTV가 이 시대 영성의 요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로, 이 세상 어려움을 잘 보듬어 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1장 1~3절'을 살펴보면, 1절에 "주 여호와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저의 기업이 추구하는 비전이기도 한 이 말씀은 결국 복지와 선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최근 CGNTV가 제작한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이 일의 표본과도 같은 서서평 선교사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CGNTV가 지난해 한국 교회들에게 미디어 선교 노하우를 전하고, 몸소 고향 교회를 섬긴 것 등도 모두 그 뜻의 일환일 것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후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알곡들이 차고 넘치면 자연스럽게 영적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CGNTV와 함께 종교인들이 아닌 실천적 삶을 사는 신앙인들, 이 땅에 많은 알곡 교회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조선의 가난과 아픔을 등에 업고 살다간 푸른 눈의 여인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